

28. 민란(民亂)의 분화구(噴火口), 대정(大靜)⁵⁶⁾

◎ 민중(民衆)의 분노 뿜어내던 신비(神秘)의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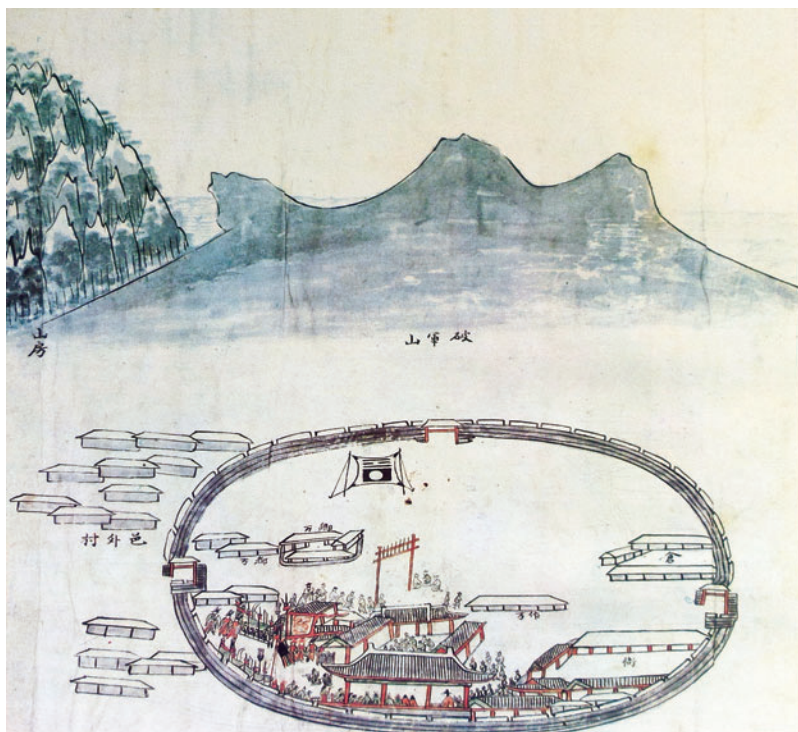
◎ 임술농민란(壬戌農民亂) · 천주교란(天主教亂) 모두 태동
(胎動) 무대(舞臺)가 되어

조선시대 말인 19세기 말엽부터 금세기 초에 걸쳐 제주도에서는 여러 차례의 민란(民亂)이 일어난다.

그 가운데서도 큰 민란을 꼽는다면 1862년(철종 13)의 임술 농민난(壬戌 農民亂), 1898년(광무 2)의 방성칠난(房星七亂), 1901년(광무 5)의 천주교난(天主教亂)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민란들이 일어난 배경을 추적하다 보면 모두 대정현(大靜縣)에 귀착하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아직 역사로 돌리기엔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엄청난 4·3 사건도 따지고 보면 이 대정읍을 배제하고는 그 진원(震源)을 규명할 수가 없다. 이 일련의 민란들이 한 결 같이 대정읍이 분화구(噴火口)

56) 『한라일보』 제166호 (1989. 11. 04).



18세기 초의 대정(大靜) 고을 | 이 그림은 당시 목사(牧使)였던 이형상(李衡祥)이 대정 고을을 시찰하여 경로연(敬老宴)을 베풀었던 장면이다. 3문(門)과 홍살문 등이 잘 나타나 있다.

가 되고 무대가 되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참으로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농민난 앞장 선 강제검(姜悌儉)

대정은 도대체 어떤 땅인가. 호사가(好事家)들의 말처럼 ‘뇌전지(雷電之地)’인가 ‘태화지(胎火之地)’인가. 아니면 ‘빈마지(牝馬之

勢)·만물자생(萬物資生)’의 땅인가. 필자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비밀을 지닌 신비의 땅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1862년의 임술 농민난은 강제검(姜悌儉)의 난으로 더 알려졌던 것처럼 민란을 주동했던 사람은 대정의 강제검이었다. 그가 거사를 앞두고 지도를 받은 사람도 대정의 한학자 김석구(金錫九)였다.

그들이 부역(賦役)의 불공평, 장세(場稅)·화전세(火田稅)의 과징, 환곡의 착폐, 화살대의 공출 등에 항의하여 제주 관영에 쳐들어가기로 모의하고 모든 준비를 서둔 것도 대정에서였다.

그들은 비밀리에 동지들을 규합하고 삼읍에 방(榜)을 돌려 1862년 10월 드디어 봉기하였다. 농기구와 몽둥이 등을 든 수만 군중이 3문을 부수고 제주성에 입성하였다. 이 난리로 목사 임헌대(任憲大)는 군중 앞에서 성토 축출되고 민원 대상이 되었던 아전들은 몰매를 맞아 죽었으며, 관아의 장부 공문서 등이 불타 버렸다.

민란은 일단 성공하였지만 그 주모자들은 마침내 체포되어 처벌되었다. 강제검·김흥채(金興采)는 효수되고 장환(張煥)은 참형(斬刑)되었으며 박흥열(朴興悅)·김석구(金錫九)·김연홍(金蓮弘)·현재득(玄才得)·이유락(李有洛)·강팽록(姜彭祿)·조명순(趙明順) 등은 유형 되었다.

이때 김흥채(제주 봉개), 박흥열(애월 소길) 등 몇 사람을 제외한 주모자들은 거의 대정 사람들이었다.

난(亂)의 모태(母胎)는 상무사(商務社)

1898년(광무 2)의 무술년(戊戌年) 민란은 일반에게는 흔히 방성칠난

(房星七亂)으로 알려져 있다.

이 민란의 장두(狀頭)⁵⁷⁾였던 방성칠은 원래 전라도(全羅道) 동복(同福)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민란을 일으키는 발판이 되었고 활동 무대가 되었던 화전(火田) 지대 등이 주로 대정 지경이었다. 또 그에 호응한 인물들도 대정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다.

동학교도(東學敎徒)였던 방성칠[일명·방갑(房甲)]이 제주도에 들어온 것은 동학난(東學亂)이 실패로 돌아가던 1894년(고종 31)이었다. 큰 체구에 남다른 뚝심을 지니고 술수(術數)까지 쓰는 기인(奇人)으로 알려진 그는 입도 후 화전 지대를 돌아다니며 포교(布教)와 동지 규합에 힘썼다.

그는 마침내 남학당(南學黨)을 조직하고 수백 명을 거느려 동헌(東軒)으로 몰려와 목사에게 항소했다. 그들의 항의는 화전세(火田稅)와 마장세(馬場稅)의 과징, 호포(戶布)[호별세(戶別稅)]의 과징, 사환(社還, 환곡)의 폐단 등이었다.

그러나 목사는 민폐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뒤에서 장정을 모집, 방성칠 일당을 칠 계획을 서둘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들은 1898년(광무 2) 2월 28일을 기하여 3읍에 방을 돌리고 무장봉기하기에 이르렀다.

그해 3월 1일 수만 군중을 이끌고 드디어 그들은 제주성에 쳐들어왔다. 목사 이병휘(李秉輝)와 대정군수(大靜郡守) 채구석(蔡龜錫)은 군중에 몰매를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그 밖의 관리들도 맞아 죽거나 중상을 입었다.

그들은 제주성을 점거하는데 성공하고 스스로를 어남군(御南軍)이라

57) 신문에는 ‘壯頭’으로 되어 있다. ‘狀頭’으로 바로 잡음.

고 하여 전도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그 뒤 창의군(倡義軍)이 일어나 방성칠, 강벽곡(姜辟穀), 김낙영(金洛榮) 등 주동자 7인이 타살되고 대정의 주모자 15인도 모두 체포되었다.

1901년(광무 5) 신축년(辛丑年) 민란은 천주교란(天主敎亂) 또는 이재수(李在守)의 난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난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정을 무대로 대정 사람들에 의하여 주도된 민란이었다.

천주교도들의 횡포와 봉세관(棒稅官) 강봉헌(姜鳳憲)의 세금 과징이 주요 원인이 되었던 이 민란은 대정의 상무사(商務社)가 그 모태(母胎)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01년 4월 초에 조직된 이 상무사는 대표에 채구석(대정군수), 위원에 이성교(李成喬), 송희수(宋希洙), 오대현(吳大鉉), 강우백(姜遇伯), 강백(姜栢), 강철호(姜哲鎬) 등이 선임되었다.

처음 오대현을 장두로 진정단(陳情團)을 구성하여 목사에게 소청하려던 것이 명월에서 천주교도들의 기습을 받으면서 마침내 무장봉기로 급전하였다.

그해 5월 15일을 기하여 총검과 죽창 등으로 일제히 봉기한 그들은 척사기(斥邪旗)를 앞세워 동서로 진군하기 시작했다. 장두 오대현은 명월에서 천주교도들에 납치돼 있는 상태였으며 서진대장(西陣大將)은 이재수, 동진대장(東陣大將)은 강우백이 맡아 지휘하였다.

그들이 황사평(黃沙坪)에서 합류, 제주성에 입성한 것은 그해 5월 28일이었다. 이들이 입성 하고나서 피살된 천주교도들은 3백명 안팎으로 알려졌으며 민란을 치르는 동안 도 전역에서 약 5~6백의 교도와 도민이 죽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주 대정 삼의사비(대정 안성리)」 1901년 '이재수난'의 세 장두(강우백, 오대현, 이재수)를 추모하여 세운 비. 1997년 대정고를 연합청년회가 건립되었다.

이제 화산(火山)은 잠들고

뒤늦게 정부가 파견한 진위대(鎭衛隊) 병력이 진주하고 사태는 수습이 되었지만 이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난 다음이었다.

이재수 · 오대현 · 강우백 등 세 장두는 서울에 압송되어 재판을 받고 그해 10월 서울 감옥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채구석도 사형이 언도되었으나 직접 행동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뒤에 방면되었으며 김남혁(金南赫) · 조사성(趙土成) · 고영수(高永秀) · 이원방(李元方) 등 주모자 11인은 모두 형벌을 받았다.

억압이 한계에 이를 때마다 민중의 분노를 활화산처럼 분출(噴出)해 내던 대정 고을. 지금은 휴화산(休火山)이 되어 안성(安城) · 보성(保城) · 인성(仁城)리(里)가 어우러지는 기축을 이루고 있는 곳. 이 땅이 어떤 땅

이기에 이처럼 민중의 분화(噴火)를 뿔어낼 수 있었을까.

산방산(山房山) · 단산(簞山) · 송악산(松岳山) · 모슬봉(慕瑟峰)이 에워싸
한라산의 맥(脈)을 멎게 한 이 마을. 필자는 멎하니 서서 둘레를 살펴보
지만 그 속내를 알 길이 없다.

이제는 아주 잠들어 다시는 이 땅에 분노가 없는 평화의 날이 정착
되기를 빌고 싶다.